

2020년 11월 7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반장 최명철(044-201-2511), 서기관 유재형(2515)

농림축산식품부 ASF 국내방역반 반장 이제용(044-201-2531), 사무관 이용진(2537)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장 이기중(044-201-2551), 서기관 황상철(2555) /제공: 11월 7일(총 4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2020.11.7.)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현황(10월 이후)>

발견장소(시료 채취일)	고병원성 여부(확진일)	혈청형
천안 봉강천(10.21)	고병원성(10.25)	H5N8
용인 청미천(10.24)	고병원성(10.28)	H5N8
군산 만경강(10.26)	저병원성(11.1)	H7N1·N2·N3·N8(믹스형)
양주 상패천(10.26)	저병원성(11.2)	H5N3
사천 사천만(11.2)	검사중	H5 (N형은 검사중)
부안 조류지(11.3)	검사중	H7 (N형은 검사중)
아산 곡교천(11.4)	검사중	H5 (N형은 검사중)
군산 만경강(11.4)	검사중	H5 (N형은 검사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해외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 11월 1일부터 11월 5일(45주차)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24건*으로, 전 주차(44주차) 10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 (가금사육농장) 러시아 6건(10.5, 10.12, 10.13, 10.19, 10.20 2건), 영국 1건(10.24), 독일 1건(11.4), 이스라엘 4건(10.29, 10.30, 11.1, 11.3)
(야생조류) 독일 12건(10.30 7건, 11.2 5건)

- 앞서, 11월 4일에는 일본 카가와현(香川県) 미토요시(三豊市)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닭이 확인되어, 일본 정부가 11월 5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33만수의 닭을 모두 살처분하기도 하였다.
 - 11월 6일, 일본 정부의 검사 결과, 해당 닭은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농식품부는 야생철새의 국내 유입이 12~1월까지 증가하던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던 8곳* 인근(발생지점 반경 10km 내)의 전업 가금농장에서 사육중인 가금류에 대한 임상예찰 및 검사를 실시하였고,
 - * 봉강천, 청미천, 만경강(2개소), 상패천, 사천만, 조류지, 곡교천
- 검출지역 반경 500m 내에 사람·차량 출입 금지를 위한 통제 초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 농식품부는 가금농장과 거점소독시설* 등 5천여개소에 대한 특별 방역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반'(44개 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을 구성하여 11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기간이 끝나는 '2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축산차량을 통한 가축전염병 오염원 전파의 차단을 위해 지역별로 설치한 소독시설

- 특별 현장점검반은 농장 및 시설에 대한 소독·방역 시설과 내·외부 소독 실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점검기간인 '21.2월까지 1개월마다 반복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자체 차원에서도 철새도래지 인근에 위치한 농장 중 특히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장에 대한 수매·도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현재까지 충북(소규모 가금농장 99호), 경남(35호), 전북(3호), 강원(1호), 대전(2호), 광주(1호)에서 수매·도태가 이루어졌다.
 - 경남 창녕의 경우, 올 겨울을 대비하여 7월에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소규모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매·도태를 실시*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 수매·도태 후에도 겨울철 입식을 금지하고, 위반 시 보상금 전액 환수 조치
 - 강원도는, 가금거래상인이 운영하는 계류장에 대한 점검* 결과 미흡한 곳에 대해 시설 보완을 완료한 경우 영업을 허용하였으며,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거래상인에 대해 수매·도태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 * 농식품부에서 전국의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187개소에 대해 소독·방역실태 일제 점검 실시(10.5~10.8)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11월 6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매일 실시중)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중수본은 한돈협회와 함께 양돈농장 내·외부 소독에 필요한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경기·강원 접경지역 양돈농장 395호에 개별 배부(11.2~11.6)하였다
- 농식품부는 11월 6일, 구제역 방역을 위해 96대의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접경지역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19~'20년)된 시군의 소 사육농장 주변을 집중 소독(소독실적: 1,280호)하였다.
 - * 접경지역 시군(14): (인천) 강화·옹진, (경기) 연천·포천·동두천·파주·고양·김포·양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 *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 시군(4): (인천) 강화, (경기) 동두천·안성, (전남) 순천
-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고, 해외에서의 발생도 급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 "철새도래지 등 오염지역의 소독, 사람 및 차량의 출입통제, 농장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 지도 등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하였다.